교훈

자주(自主) 탐구(探究) 도의(道義) 지·덕·체가 조화로운 지도자 육성 이 일 여 자 고 등 학 교

# 가정통신문

· 담당부서: 학생인권안전부

· 문의전화: 720-5165 · 발행일자: 2022.07.20.

#### 학부모님께

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워합니다.

여름방학을 맞이하여 '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'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는 내용은 '물놀이 안전수칙'입니다. 안전에 대한 지식 부족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즐거운 여름 휴가와 물놀이가 큰 슬픔으로 바뀌지 않도록 학부모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.

###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요령

본격적으로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, 8월은 하천, 계곡, 바닷가(갯벌·해변)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.

### 물놀이 10대 안전수칙

-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
-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(다리→ 팔→ 얼굴→ 가슴)
-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휴식
-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!!
-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, 배가 고플 때, 식사 후에는 수영 NO!
-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, 무모한 행동 NO!
- 장시간 수영 NO!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 NO!
-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
- 구조 경험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 NO! 함부로 물에 뛰어들면 NO!
- 가급적 튜브,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안전구조

## 물놀이 안전수칙

### ☺ 물놀이 이전에 먼저 하여야 할 것들

- ☞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.
- ☞ 피부보호를 위하여 햇빛 차단 크림을 바릅니다.
- ☞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묶거나 수영 모자를 씁니다.

(※ 물놀이 중에 머리카락이 목에 감길 수 있습니다.)

### ☺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

- ☞ 물에 들어갈 때는 손, 발→다리→얼굴→가슴의 순서로 몸에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갑니다.
- ☞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합니다.
- ☞ 다리에 쥐가 나면 즉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.
- ☞ 다음의 증상의 있으면 물놀이를 중지합니다.
  - 몸이 떨리거나, 입술이 푸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
  -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
- ☞ 위급할 때는 한쪽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흔들어 도움을 청합니다.
- ☞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습니다.







#### ※ 어린이들을 위해

- 물 근처에서 아이들이 혼자 놀지 않도록 합니다.
- 친구를 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합니다.
-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가도 절대 혼자 따라가서 건지려 하지 말고,
  어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.

2022년 7월 20일 이 일 여 자 고 등 학 교 장(직인생략)